

#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적용한 청소년의 관계적 괴롭힘과 우울 간의 관계 검증 : 인지 및 대처 요인을 중심으로

최 정 아\*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주요 스트레스 사건인 관계적 괴롭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지적 평가 요인의 일차 평가에 해당하는 위협 평가와 이차평가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 그리고 대처 요인인 관여 대처와 비관여 대처를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여 관계적 괴롭힘과 우울 간의 관계 구조를 설정한 연구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중학교 재학생 1,2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대하여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계적 괴롭힘 피해경험이 위협평가와 비관여 대처를 통하여,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관여 및 비관여 대처를 통하여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위협 평가와 비관여 대처 간의 관련성 및 자기효능감과 관여 대처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관계적 괴롭힘 피해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 전략에 대한 함의가 제시되었다.

주제어 : 관계적 괴롭힘, 인지적 요인, 대처, 우울, 스트레스-대처 이론, 구조방정식, 매개효과 비교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 I. 서 론

본 연구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야기하는 주요 스트레스 사건으로서 관계적 괴롭힘(relational victimization)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대인관계의 조종이나 손상을 통해 해를 입히는 관계적 괴롭힘은 연령 증가에 따른 증가,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 정신건강을 비롯한 심리사회적 기능에 대한 부정적 영향, 하지만 쉽게 발견되지 않는 비가시성 등으로 인해 주목되는 또래 괴롭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Crick & Grotpeter, 1996).

청소년기의 또래 괴롭힘은 대인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스트레스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40~80%가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15%는 만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unoven & Graham, 2001, Sullivan et al., 2006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또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의 한 연구(김재엽·정윤경, 2007)에 의하면, 조사 대상 청소년의 34.9%가 지난 1년간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청소년 역시 조사 대상자의 3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울시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 2006) 또래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또래 괴롭힘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외현적 행동이나 신체적 공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관계적 공격(relational aggression) 또는 관계적 괴롭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Prinstein et al., 2001). 관계적 공격 역시 신체적 공격 못지않은 손상을 미묘하고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입히는 것으로 나타나(Crick & Grotpeter, 1996) 관계적 괴롭힘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다양한 부적응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관계적 괴롭힘의 피해자들은 우울하고 불안하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rick & Grotpeter, 1996), 또래 괴롭힘으로 야기되는 이러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강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Hawker & Boulton, 2000).

한편, 청소년기 우울의 발현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모델들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스트레스-대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삶에 있어

서 스트레스 사건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이론적, 실천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사건과 정신 병리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인지적 평가와 같은 가능한 매개 변인을 고려하지 않는 스트레스 이론은 개념적으로 부정확하며 실증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Reiss & Oliveri, 1991).

이러한 상황에서 라자러스(Lazarus, R. S.)와 포크맨(Folkman, S.)(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은 또래 괴롭힘 피해자의 대처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이 이론이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대처에만 초점을 맞추어 인지적 평가와 같은 가능한 매개 변인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제한적인 결과만을 제시해왔다. 또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서적, 행동적 요인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대처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측정함에 있어서 분명한 이론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Compas et al., 2001).

한편,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과 관련된 국내 연구의 경우, 실태 조사 중심의 초기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최근에는 또래 괴롭힘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에 관한 연구(심희옥, 2007; 이정숙 외, 2007), 그리고 또래 괴롭힘 및 학교 폭력 피해 경험과 이로 인한 결과 간의 관계에서의 매개 또는 조절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김재엽·정윤경, 2007; 김예성·김광혁, 2008)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과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또래 괴롭힘 피해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과정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분명한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또래 괴롭힘의 유형에 따른 고유한 영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스트레스-대처 이론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널리 사용되는 라자러스와 포크맨(1984)의 이론을 토대로 하되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외되었던 인지적 평가를 포함하여 관계적 괴롭힘 경험이 피해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라자러스와 포크맨(1984)이 제시한 대처의 개념은 청소년의 대처 구조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Connor-Smith et al., 2000)을 고려함으로써 기존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상

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관계적 괴롭힘 피해자의 대처 과정을 보다 구체적 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보다 정교화된 개입 전략을 제시하는 데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관계적 괴롭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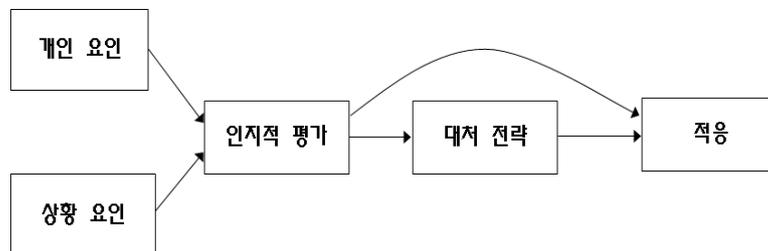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또래 괴롭힘은 외현적 괴롭힘(overt victimization)(또는 신체적 괴롭힘 physical victimization)과 관계적 괴롭힘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연구들은 또래 괴롭힘의 상이한 유형들을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torch et al., 2005). 외현적 괴롭힘은 다른 또래로부터 신체적, 언어적인 공격적 행동을 직접 당하는 괴롭힘을 의미하는(Paquette & Underwood 1999) 반면, 관계적 괴롭힘은 해를 입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의해 작간접적으로 위협 또는 조종당하는 것을 의미한다(Crick, et al., 2001).

이동 및 청소년기의 공격성 또는 또래 괴롭힘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신체적, 외현적 공격에 초점을 맞추어 온 반면, 관계적 공격 또는 괴롭힘은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으로서 이러한 개념에 주목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현적 공격 뿐 아니라 관계적 공격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괴롭힘과 관련된 포괄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관계적 괴롭힘은 신체적 괴롭힘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청소년기에 보다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lweus, 1994). 셋째, 관계적 괴롭힘은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신체적 괴롭힘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glund & Leadbeater, 2007). 관련 연구들을 통하여 또래 괴롭힘이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적응과 관련된 위험 요인인 것으로 밝혀져 왔으나(Hawker & Boulton, 2000),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아(Harnish & Guerra, 2002) 또래 괴롭힘과 다양한 부적응 문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관심을 야기함과 동시에 괴롭힘의 하위 유형에 따라 적응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하였다.

## 2. 스트레스-대처 이론

스트레스-대처 이론은 청소년기 우울 및 또래 괴롭힘과 모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 우울의 발현을 설명하고자 하는 주요 이론적 모델들 가운데 공통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것이 바로 스트레스-대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Rudolph, 2002). 스트레스-대처 이론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널리 사용되는 모델은 바로 라자러스와 포크맨(1984)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의 주요 개념은 인지적 평가 및 대처라고 할 수 있는데, 라자러스와 포크맨(1984)에 의하면, 인지적 평가는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사건을 다루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지적 평가는 다시 일차 평가(primary appraisal)와 이차 평가(second appraisal)로 구분되는데, 일차 평가는 어떤 사건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스트레스 사건이 위협 또는 도전으로 평가되는 정도를 뜻한다(Lazarus & Folkman, 1984). 그리고 이차 평가는 어떠한 대처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러한 대처를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서 효능감 기대(efficacy expectations)나 원하는 결과를 야기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포함된다(Bandura, 1977). 그리고 대처는 지각된 스트레스로 야기된 요구 및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라자러스와 포크맨(1984)의 이론에 의하면, 대처 전략의 사용은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평가는 상황적 변인과 개인적 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평가는 상황 및 개인 요인과 대처 간의 관계를 매개하게 되며, 대처 전략은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스트레스-대처 과정(Hunter, 2008)

한편,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정서중심대처(emotion-focused coping)와 문제중심대처(problem-focused coping) 차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이러한 차원이 이질적인 대처 유형들을 동일한 범주로 묶어 버렸기 때문이다(Coyne & Gottlieb,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처의 위계적 구조를 검증한 토빈(Tobin, D. L.) 등(1989)의 연구에 근거하여 관여(engagement) 및 비관여(disengagement) 대처의 구분을 사용하였다.

### 3. 관계적 괴롭힘, 인지적 평가, 대처 및 우울 간의 관계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관계적 괴롭힘의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은 또래에 비해 더 많이 우울하고,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회피, 그리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ick & Grotpeter, 1995). 크릭(Crick, N. R.)과 빅비(Bigbee, M. A.)(1998)의 연구에 의하면 관계적 괴롭힘의 피해자들은 다른 또래들에 비해 정서적으로 더 많이 혼란되어 있고, 또래에 의해 더 많이 거부되며, 더 많이 외롭고, 더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린스타인(Prinstein, M. J.) 등(2001)의 연구에 의하면 관계적 괴롭힘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학령 전기에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관계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또래 거부,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부적응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졌다(Crick, et al., 2002; Crick & Nelson, 2002).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 연구에 의하면 관계적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들일수록 외로움이나 우울과 같은 사회심리적 문제를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ick & Grotpeter, 1996).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즉, 관계적 괴롭힘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일수록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이 내재화 증상과 외로움을, 그리고 낮은 자기 가치감을 나타내었다(Prinstein et al., 2001).

한편, 또래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과 우울 간의 관련성은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김예성과 김광혁(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이전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이 이후의 우울 및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명숙과 조혜정(2008)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집단이 비경험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재엽과 정윤경(2008)의 연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많은 연구들을 통해 또래 괴롭힘이나 학교폭력, 특히 관계적 괴롭힘이 청소년기 주요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스트레스 대처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영향은 인지적 평가 및 대처를 통하여 매개되는 것이며, 이러한 매개 과정을 가정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들 역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먼저,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관계적 괴롭힘 피해경험은 인지적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터(Hunter, S. C.)와 보일(Boyle, J. M. E.)(2004)의 연구에 의하면, 자주 또래 괴롭힘을 당한 여아들은 그렇지 않은 여아에 비해 낮은 통제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12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 연구에 의하면,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이 위협 평가를 증가시킨 반면, 이차 평가인 통제 평가는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Hunter, 2008).

그리고 인지적 평가는 대처 전략 사용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텐버그(Rotenberg, K. J.) 등(1998)의 연구에 의하면 위협 평가가 부정적 정서 및 심리적 부적응(우울, 적대감, 불안)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헌터(2008)의 연구에서는 이차 평가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반면, 위협 평가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인지적 평가는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 전략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결정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Kliewer, et al., 1998). 헌터와 보일(2004)의 연구에 의하면, 관여 대처 전략 가운데 한 가지인 사회적 지지의 사용은 도전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한 연구에 의하면, 위협 평가는 비관여 대처 전략과 관련된 내재화 및 외현화 대처전략에 정적인 영향을, 관여 대처 전략인 사회적 지지 추구 및 문제 해결 전략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unter, 2008). 이 외에 테리(Terry, D. J.)(1994)는 대처에 대한 자기효능감 평가의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자이존 증감이나 통제 신념과 같은 개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효능감 평가가 도구적 행동의 사용과는 정적인 관계가, 그리고 회피(escapism)/자기비난 전략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의 유형이 대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차 평가에 의해 이러한 관계가 일부 매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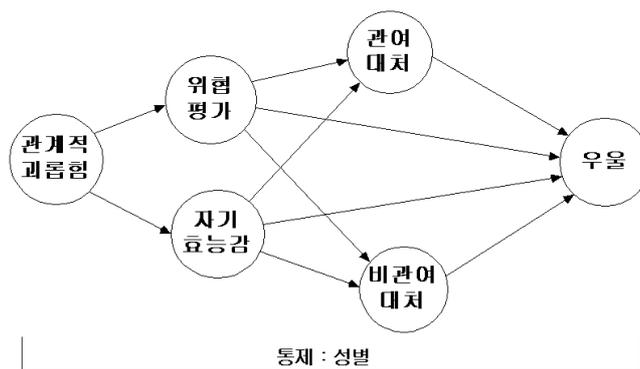
한편, 대처와 관련하여 이루어져 온 연구들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대처와 적응

수준 간의 관련성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비관여 대처 사용 수준과 청소년기의 내재화 증상 간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반면, 관여 대처와는 부적 인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Connor-Smith et al., 2000; Seiffge-Krenke & Klessinger, 2000). 즉, 낮은 관여 대처 사용 수준 및 높은 비관여 대처 사용 수준은 우울 증상과 관련되며(Compas et al., 1993), 비관여 대처 사용의 증가 및 관여 대처 사용의 감소는 청소년기의 우울 증상의 증가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eiffge-Krenke & Klessinger, 2000). 이상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관련 연구들은 관여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은 감소되는 반면, 비관여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이 증가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대처 이론 및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관계적 괴롭힘 피해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요인 가운데 일차 평가에 해당하는 위협 평가와 이차 평가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 그리고 대처 요인인 관여 대처와 비관여 대처를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여 제시된 바와 같은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연구 모형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2회의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의 11개 지역 교육청 중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 6개의 지역 교육청 소속 및 경기 지역 중학교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2008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11월 29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조사를 통하여 총 1,363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이 많은 125부를 제외한 총 1,238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측정도구

### 1) 우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ES-DC(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 Faulstich et al., 1986; Weissman et al., 1980)를 사용하였다. CES-DC는 성인용 CES-D의 수정판으로서 6세에서 17세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이다. CES-DC는 우울 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주일 동안의 정서나 행동에 대해 4점 척도(0: '극히 드물게(1일 미만)', 1: '가끔(1~2일)', 2: '자주(3~4일)', 3: '거의 대부분(5~7일)')로 측정하게 되어 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내적 일치도는 .9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Olsson & von Knorring, 1997),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81로 나타났다.

### 2) 관계적 괴롭힘 피해 경험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괴롭힘 피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RPEQ(Revised Peer Experiences Questionnaire, Prinstein et al., 2001)의 관계적 괴롭힘 하위 차원(5문항)을 사용하였다. RPEQ는 PEQ(Peer Experiences Questionnaire, Vernberg et al., 1999)의 수정판으로서, 청소년의 외현적·관계적 괴롭힘 가해와 피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며,

괴롭힘 피해의 경우, 외현적 괴롭힘을 측정하는 4문항과 관계적 괴롭힘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린스타인 등(2001)의 연구에서의 관계적 괴롭힘 피해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7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94로 나타났다.

### 3) 위협 평가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위협 평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SAMA(Stress Appraisal Measure for Adolescents, Rowley et al., 2005)의 위협 하위차원을 사용하였다. SAMA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평가의 3개 하위 차원, 즉, 위협, 도전, 자원을 측정하는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SAMA의 내적 일치도는 도전 하위 차원의 경우, .79, 위협 하위 차원의 경우, .81, 자원 하위 차원의 경우, .7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FI(Comparative Fit Index)=.99,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02인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와 구성 타당도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Rowley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위협 평가에 해당하는 7문항만을 이용하였는데, 도전이나 자원을 묻는 하위차원의 문항 내용이 대처를 측정하는 내용과 중복됨으로써 인지적 평가의 고유한 영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10으로 나타났다.

### 4)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평가 가운데 이차 평가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SE(General Self-Efficacy Scale, Schwarzer & Jerusalem, 1995)를 사용하였다. GSE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내적일치도는 .75-.91인 것으로 나타났다(Schwarzer & Scholz, 2000).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21로 나타났다.

### 5) 대처

본 연구에서는 관여 대처와 비관여 대처를 측정하기 위하여 CSI-S(Coping Strategies

Inventory-Short form, Tobin, 1995)를 사용하였다. CSI(Coping Strategies Inventory, Tobin, 2001)는 특정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대처 사고 및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자기 보고식 척도로서 라자러스의 “Ways of Coping” questionnaire(Folkman & Lazarus, 1981)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CSI의 축약형인 CSI-S는 관여 대처와 비관여 대처를 측정하는 32문항(각각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척도의 평균 내적 일치도는 .90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obin, 1995). 본 연구에서의 관여 대처 차원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46, 비관여 대처 차원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43으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고 인지 및 대처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구조방정식 모형은 Mplus 3.1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추정방법으로는 Satorra-Bentler chi-square(MLM 방법<sup>1)</sup>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추정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자료의 정상분포 조건<sup>2)</sup>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표 2〉 참조). 또한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가상 변수(phantom variable)<sup>3)</sup>를 적용하여 다중 매개에서의 매개 효과에 대한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 분석을 위하여 SPSS 1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 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1) Satorra-Bentler chi-square 방법은 교정된  $\chi^2$ 값과 표준오차를 적용함으로써 자료가 비정상성(non-normality)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Satorra & Bentler, 1994, 홍세희, 2008 재인용; Muthén & Muthén, 2007).

2) 왜도가 2보다 크거나 첨도가 7보다 큰 경우(일반적인 통계 패키지에서는 3을 뺀 4보다 큰 경우)가 아니면 추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West et al., 1995).

3) 가상변수(phantom variable)를 이용하여 두 매개 효과의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이 가능하다(Rindskopf, 1984, 홍세희, 2008 재인용).

## IV. 분석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 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이 52.3%(647명), 남자 청소년이 47.7%(5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1학년이 441명으로서 35.6%를 차지하였으며, 2학년이 296명으로 23.9%, 그리고 3학년이 501명으로 40.5%를 차지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14세에서 16세에 해당되었으며(96.0%), 17세인 경우도 1명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238)

구 분		빈 도 <sup>4)</sup>	백분율(%)
성별	남	591	47.7
	여	647	52.3
연령	13세	49	4.0
	14세	429	34.7
	15세	339	27.4
	16세 이상	421	33.9
학년	중 1	441	35.6
	중 2	296	23.9
	중 3	501	40.5
부모 동거	양부모와 동거	1088	90.8
	한부모와 동거	98	8.2
	조부모와 동거	12	1.0
생활수준	상	226	18.4
	중	844	68.9
	하	155	12.7

대부분의 학생들(90.8%)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만 거주하는 경우는 8.2%(98명), 조부모와만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1.0%(12명)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가정의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

4) 결측값으로 인해 각 변수별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 및 전체 사례 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답한 경우가 68.9%(844명)로 가장 많았으며, 부유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8.4% (226명),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2.7%(155명)로 나타났다.

## 2. 주요변수의 기초통계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표준편차 및 평균과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과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주요구성요인 특성

(n=1,238)						
잠재변수	측정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왜도	첨도
관계적 괴롭힘	RV 1	1.21	.622	1-5	3.84	16.85
	RV 2	1.16	.578	1-5	4.45	21.96
	RV 3	1.14	.552	1-5	4.76	24.41
	RV 4	1.13	.494	1-5	4.72	25.97
	RV 5	1.16	.525	1-5	4.43	23.25
위협 평가	TA 1	2.59	.81	1-4	-.19	-.42
	TA 2	2.31	.87	1-4	.22	-.62
	TA 3	2.23	.88	1-4	.31	-.60
	TA 4	2.44	.92	1-4	-.04	-.86
	TA 5	2.26	.89	1-4	.30	-.64
	TA 6	2.27	.91	1-4	.19	-.79
	TA 7	2.49	.88	1-4	-.16	-.71
자기효능감	SE 1	2.75	.62	1-4	-.23	.72
	SE 2	2.60	.64	1-4	.13	.19
	SE 3	2.77	.62	1-4	-.33	.87
	SE 4	2.66	.66	1-4	-.05	.19
	SE 5	2.73	.61	1-4	-.16	.68
관여 대처	EC 1	2.85	.45	1-4	-.39	1.78
	EC 2	2.78	.49	1-4	-.36	1.03
비관여 대처	DC 1	2.60	.53	1-4	-.58	.99
	DC 2	2.04	.54	1-4	.14	.20
우울	Dep 1	.98	.53	0-3	.77	.88
	Dep 2	1.24	.63	0-3	.45	-.16
	Dep 3	.89	.61	0-3	.94	.84
	Dep 4	.70	.57	0-3	1.23	1.94
	Dep 5	.60	.70	0-3	1.43	1.66

<표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n=1,238)

	RV1	RV2	RV3	RV4	RV5	TA1	TA2	TA3	TA4	TA5	TA6	TA7	SE1	SE2	SE3	SE4	SE5	PE	EE	PD	ED	D1	D2	D3	D4	D5	
RV1																											
RV2	.686**																										
RV3	.618**	.643**																									
RV4	.590**	.561**	.664**																								
RV5	.643**	.689**	.603**	.605**																							
TA1	.134**	.121**	.091**	.071*	.120**																						
TA2	.171**	.182**	.151**	.118**	.182**	.561**																					
TA3	.163**	.166**	.145**	.128**	.182**	.436**	.671**																				
TA4	.169**	.171**	.138**	.120**	.167**	.428**	.647**	.666**																			
TA5	.182**	.164**	.148**	.120**	.173**	.455**	.689**	.703**	.761**																		
TA6	.184**	.150**	.143**	.143**	.172**	.377**	.488**	.530**	.616**	.615**																	
TA7	.150**	.138**	.107**	.094**	.141**	.545**	.612**	.587**	.653**	.673**	.601**																
SE1	-.115**	-.130**	-.149**	-.114**	-.152**	-.140**	-.173**	-.214**	-.178**	-.181**	-.155**	-.143**															
SE2	-.066*	-.070*	-.109**	-.061*	-.087**	-.192**	-.162**	-.210**	-.197**	-.211**	-.222**	-.205**	.679**														
SE3	-.095**	-.105**	-.113**	-.100**	-.115**	-.148**	-.169**	-.226**	-.186**	-.184**	-.181**	-.169**	.646**	.726**													
SE4	-.088**	-.095**	-.111**	-.085**	-.098**	-.145**	-.149**	-.201**	-.187**	-.191**	-.187**	-.174**	.628**	.699**	.756**												
SE5	-.096**	-.084**	-.122**	-.111**	-.110**	-.143**	-.133**	-.178**	-.169**	-.180**	-.175**	-.164**	.628**	.656**	.702**	.744**											
PE	-.071*	-.078**	-.109**	-.085**	-.073*	-.156**	-.092**	-.104**	-.088**	-.113**	-.049**	-.099**	.366**	.357**	.375**	.357**	.363**										
EE	-.045	-.084**	-.069*	-.084**	-.045	-.124**	-.069*	-.119**	-.088**	-.069**	-.083**	-.088**	.363**	.347**	.334**	.326**	.340**	.535**									
PD	.096**	.056*	.086**	.069**	.091**	.185**	.183**	.181**	.244**	.225**	.217**	.234**	.108**	.157**	.057**	.084**	.099**	.076**	.049								
ED	.263**	.233**	.214**	.214**	.247**	.189**	.267**	.309**	.295**	.311**	.347**	.294**	.243**	.243**	.214**	.246**	.199**	.207**	.067**	.270**							
D1	.180**	.157**	.130**	.157**	.151**	.191**	.285**	.293**	.271**	.285**	.241**	.253**	.244**	.194**	.213**	.241**	.246**	.207**	.067**	.270**	.558**						
D2	.175**	.163**	.150**	.161**	.139**	.232**	.289**	.341**	.356**	.358**	.309**	.337**	.223**	.245**	.256**	.239**	.240**	.177**	.155**	.116**	.270**	.558**					
D3	.289**	.224**	.198**	.223**	.234**	.268**	.329**	.350**	.343**	.353**	.333**	.334**	.230**	.251**	.254**	.262**	.280**	.179**	.208**	.150**	.319**	.557**	.618**				
D4	.316**	.338**	.290**	.296**	.289**	.229**	.290**	.324**	.323**	.299**	.320**	.312**	.223**	.194**	.237**	.213**	.224**	.172**	.220**	.137**	.373**	.470**	.532**	.584**			
D5	.301**	.274**	.251**	.258**	.263**	.251**	.320**	.338**	.352**	.361**	.348**	.333**	.153**	.198**	.197**	.166**	.166**	.083**	.164**	.352**	.482**	.558**	.588**	.651**			

\* p<.05, \*\* p<.01, \*\*\* p<.001

### 3. 모형검증

#### 1) 측정모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측정모형 분석결과

(n=1,238)					
잠재변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t
관계적 괴롭힘	→ RV1	1.000	.806	.000	.000
	→ RV2	.951***	.825	.057	16.654
	→ RV3	.867***	.787	.074	11.674
	→ RV4	.736***	.747	.071	10.393
	→ RV5	.842***	.804	.079	10.699
위협 평가	→ TA1	1.000	.574	.000	.000
	→ TA2	1.486***	.789	.067	22.020
	→ TA3	1.511***	.794	.078	19.374
	→ TA4	1.681***	.844	.084	20.115
	→ TA5	1.684***	.875	.081	20.688
	→ TA6	1.375***	.703	.073	18.928
	→ TA7	1.487***	.783	.069	21.534
자기효능감	→ SE1	1.000	.768	.000	.000
	→ SE2	1.123***	.832	.032	34.879
	→ SE3	1.108***	.857	.033	33.163
	→ SE4	1.181***	.854	.039	30.142
	→ SE5	1.063***	.825	.037	28.764
관여 대처	→ EC1	1.000	.760	.000	.000
	→ EC2	1.005***	.705	.072	14.033
비관여 대처	→ DC1	1.000***	.470	.000	.000
	→ DC2	1.005***	.845	.186	9.878
우울	→ Dep1	1.000	.669	.000	.000
	→ Dep2	1.316***	.745	.060	22.012
	→ Dep3	1.349***	.792	.059	22.880
	→ Dep4	1.216***	.765	.064	19.103
	→ Dep5	1.516***	.770	.079	19.114
$\chi^2(df; p)=743.563(284; .000)$ $TLI=.956$ $CFI=.962$ $RMSEA=.036$ $SRMR=.032$					

\* p<.05, \*\* p<.01, \*\*\* p<.001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Tucker-Lewis Index) .956, CFI(Comparative Fit Index) .962,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36,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032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sup>5)</sup> 또한 잠재변수로부터 각 측정변수들로의 경로(요인부하량)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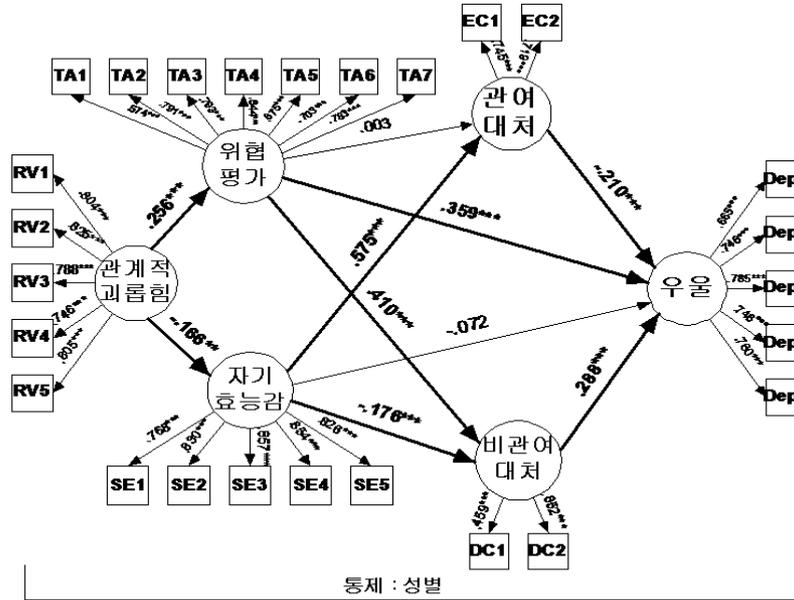
## 2)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대처 이론과 관련 선행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관계적 괴롭힘 피해, 위협 평가, 자기효능감, 관여 대처, 비관여 대처, 그리고 우울의 관계구조를 [그림 3]과 같이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그 관계구조를 검증하였다.

먼저,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TLI=.939, CFI=.946, RMSEA=.042, SRMR=.072로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관계적 괴롭힘 피해경험은 위협 평가에는 정적 영향을, 그리고 자기효능감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관여 대처와 비관여 대처에 각각 정적 및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위협 평가는 비관여 대처에만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여 대처는 우울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관여 대처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TLI와 CFI는 일반적으로 .90 이상, RMSEA는 .05 이하, SRMR은 .08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며, 이러한 4가지가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로 알려져 있다(Hu & Bentler, 1999; 홍세희, 2007)



$\chi^2(df, p)=984.189(313;.000)$   $TLI=.939$   $CFI=.946$   $RMSEA=.042$   $SRMR=.072$

\* $p<.05$ , \*\* $p<.01$ , \*\*\* $p<.001$  RV1-RV5:관계적 괴롭힘 측정문항/TA1-TA7:위협 평가 측정 문항/SE1-SE5: 자기효능감 문항 묶음/EC1-EC2:관여 대처 문항 묶음/DC1-DC2:비관여 대처 문항 묶음/Dep1-Dep5: 우울 문항 묶음. 표준화계수. 오차항 생략.

[그림 3] 구조모형

### 3) 매개효과 검증

앞서 분석된 구조모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간접 경로에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Bootstrapping 방법<sup>6)</sup>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계적 괴롭힘이 우울에 미치는 전체적인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협평가를 통한 개별적 간접효과와 자기효능감과 관여 및 비관여 대처를

6) Bootstrapping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은 간접 효과에 대한 표준오차를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하며, 간접 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영가설이 기각되어 유의한 것으로 해석된다(홍세희, 2008). Mplus에서의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전체 매개효과와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이 모두 가능하다(홍세희, 20008).

<표 5>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총 매개효과 신뢰구간(95%)	개별 매개효과	p(<.05)
RV → Dep	.111~.223		유의
RV → TA → Dep		.064~.131	유의
RV → SE → Dep		.000~.036	n.s.
RV → TA → EC → Dep		-.005~.004	n.s.
RV → SE → EC → Dep		.008~.039	유의
RV → TA → DC → Dep		.019~.050	유의
RV → SE → DC → Dep		.003~.019	유의
RV → EC	-.163~-.041		유의
RV → TA → EC		-.019~.021	n.s.
RV → SE → EC		-.155~-.043	유의
RV → DC	.092~.195		유의
RV → TA → DC		.072~.154	유의
RV → SE → DC		.010~.058	유의
TA → Dep	.076~.166		유의
TA → EC → Dep		-.017~.016	n.s.
TA → DC → Dep		.077~.170	유의
SE → Dep	-.233~-.119		유의
SE → EC → Dep		-.181~-.073	유의
SE → DC → Dep		-.081~-.029	유의

\* RV : 관계적 괴롭힘, TA : 위협평가, SE : 자기효능감, EC : 관여 대처, DC : 비관여 대처, Dep : 우울

통한 개별적 간접효과, 그리고 위협 평가와 비관여 대처를 통한 개별적 간접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계적 괴롭힘과 대처의 관계에서 위협 평가와 자기효능감은 각각 관계적 괴롭힘이 비관여 대처에 미치는 효과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관여 대처에 대한 관계적 괴롭힘의 영향은 자기효능감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평가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관여 대처와 비관여 대처 모두 자기효능감과 우울 간의 관계를 각각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위협 평가와 우울 간의 관계는 비관여 대처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모형에는 다중 매개 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하여 가상 변수를 이용하여 이러한 매개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

7) 가상변수를 이용하여 두 개의 매개효과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함으로써 어떤 매개효과가 더 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홍세희, 2008).

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 매개효과 비교

비교 경로	신뢰구간(95%)	p<.05
RV → TA → DC vs RV → SE → DC	.019~.065	유의
SE → EC → Dep vs SE → DC → Dep	-.103~-0.011	유의

\* RV : 관계적 괴롭힘, TA : 위협평가, SE : 자기효능감, EC : 관여 대처, DC : 비관여 대처, Dep : 우울

매개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중 매개 변인을 포함하면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인 관계적 괴롭힘에서 비관여 대처로의 경로와 자기효능감에서 우울로의 경로에서 나타난 매개 효과를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관계적 괴롭힘과 비관여 대처 간의 관계에서 위협 평가를 통한 매개 효과가 자기효능감을 통한 매개 효과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관여 대처를 통한 매개 효과가 비관여 대처를 통한 매개 효과보다 유의하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주요 스트레스 사건으로서 관계적 괴롭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스트레스대처 이론에 근거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지적 평가 요인으로서 위협 평가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대처 요인으로서 관여 대처와 비관여 대처를 각각 매개 변인으로 하는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와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인지적 요인과 대처 요인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그리고 이러한 다중 매개 효과들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로부터 관계적 괴롭힘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또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위협적,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위협 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을 뿐 아니라 회피나 철회 등의 소극적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비관여 대처 전략 사용 역시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또래로부터의 관계적 괴롭힘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기효능감 감소는 적극적 인 대처 전략인 관여 대처의 사용은 감소시키는 반면, 비관여 대처의 사용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거나 다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처 전략의 사용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사건이 인지적 평가와 대처를 통해 적응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라자러스와 포크먼(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지지하는 것임과 동시에 관계적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인지적 요인과 대처 요인에 초점을 두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계적 괴롭힘과 비관여 대처와의 관계에서 위협 평가가 가지는 매개효과가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매개효과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적 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인한 비관여 대처 전략 사용 증가에 자기효능감 감소보다는 위협 평가의 증가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관여 대처 전략의 사용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일차 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자기효능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관여 대처가 가지는 매개 효과가 비관여 대처의 매개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은 적극적인 대처 전략의 사용은 증가시키는 반면, 소극적인 대처 전략의 사용은 감소시킴으로써 우울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관여 대처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통해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관여 대처 전략의 사용을 강화시킴에 있어 이차 평가 요인인 자기효능감을 고양시키는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청소년기에 적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관계적 괴롭힘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기까지 포괄하여 연령에 따른 관계적 괴롭힘의 양상이나 이로 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를 통하여 관계적 괴롭힘이 우울을 야기하는 과정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이들 간의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종단연구 결과, 또래 괴롭힘이 우울을 야기하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지만,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이러한 결과가 동일한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 및 함의를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의 한 유형인 관계적 괴롭힘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서 첫 번째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계적 괴롭힘을 다룬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의 괴롭힘 문제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주로 또래 괴롭힘, 학교 폭력, 집단따돌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신체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차원으로 다루어 관계적 괴롭힘의 고유한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관계적 괴롭힘이 가지는 고유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관계적 괴롭힘에 대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라자러스와 포크먼(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트레스대처 과정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를 망라하여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적용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스트레스 사건과 인지적 평가, 그리고 대처 과정을 모두 포괄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힌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레스 사건이 우울이라고 하는 부적응적 결과를 야기하는 과정을 인지적 평가와 대처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예성·김광혁(2008). 초등학교 또래 괴롭힘 유형에 따른 특성 변화 및 피해경험을 통한 가해 경험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219-225.
- 김재엽·정윤경(2007).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요인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제19권, pp. 5-28.
- 서울시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2006). 2006년 1학기 집단따돌림 실태조사.
- 심희옥(2007). 또래 괴롭힘과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횡단 및 종단 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6호, pp. 1107-1118.
- 운명숙·조혜정(2008). 청소년의 폭력 경험 유형이 우울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 학교폭력, 중폭폭력 피해경험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9권, pp. 295-329.
- 이정숙·권영란·김수진(2007).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피해와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제16권 제1호, pp. 32-40.
- 홍세희(2007).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홍세희(2008). 구조방정식 모형의 고급 방법. 홍세희 교수의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숍 시리즈 4 자료집.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pp. 191-215.
- Compas, B. E., Connor-Smith, J. K., Saltzman, H., Thomsen, A. H., & Wadsworth, M. E.(2001).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roblems, progress, and potential in theory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7 No. 1, pp. 87-127.
- Compas, B. E., Orosan, P. G., & Grant, K. E.(1993). Adolescent stress and coping: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Vol. 16 No. 3, pp. 331-349.
- Connor-Smith, J. K., Compas, B. E., Wadsworth, M. E., Thomsen, A. H., & Saltzman, H.(2000). Responses to stress in adolescence: Measurement of

- coping and involuntary stress response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Vol. 68 No. 6*, pp. 976-992.
- Coyne, J. C. & Gottlieb, B. J.(1996). The mismeasure of coping by checklist. *Journal of Personality, Vol. 64*, pp. 959-991.
- Crick, N. R. & Bigbee, M. A.(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Vol. 66*, pp. 337-347.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6*, pp. 710-722.
- Crick, N. R. & Grotpeter, J. K.(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Vol. 8*, pp. 367-380.
- Crick, N. R., & Nelson, D. A.(2002). Relational and physical victimization within friendships: Nobody told me there'd be friends like thes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30*, pp. 599-607.
- Crick, N. R., Casas, J. F., & Nelson, D. A.(2002). Toward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eer maltreatment: Studies of relational victimiza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11*, pp. 98-101.
- Crick, N. R., Nelson, D. A., Morales, J. R., Cullerton-Sen, C., Casas, C. F., & Hickman, S. E.(2001). Relational victimiz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 hurt you through the grapevine. In J. Junoven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pp. 196-214). New York: Guilford Press.
- Faulstich, M. E., Carey, M., P., Ruggiero, L., Enyart P., & Gresham, F.(1986). Assessment of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n evalu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 (CES-DC).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43 No. 8*, pp. 1024-1027.
- Folkman, S., & Lazarus, R. S.(1981).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Vol. 21*, pp. 219-239.

- Harnish, L. & Guerra, N. G.(2002). A longitudinal analysis of patterns of adjustment following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Vol. 14*, pp. 69-89.
- Hawker, D. S. J. & Boulton, M. J.(2000). Twenty year's research on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cross-sectional stud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Vol. 41 No. 4*, pp. 441-455.
- Hoglund, W. L. & Leadbeater, B. J.(2007). Managing threat: Do social-cognitive processes mediate the link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adjustment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17*, pp. 525-540.
- Hu, L-T. & Bentler, P.(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6*, pp. 1-55.
- Hunter, S. C.(2008, 12th March). *Psychological adjustment of bullied children: Attributions vs actions*. Paper presented at Departmental Seminar, Dept. of Psychology, Keele University.
- Hunter, S. C. & Boyle, J. M. E.(2004). Appraisals and coping strategy use in victims of school bully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4*, pp. 83-107.
- Juvonen, J. & Graham, S.(2001).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New York: Guilford Press.
- Kliewer, W., Fearnow, M. D., & Walton, M. N.(1998). Dispositional, environmental, and context-specific predictions of children's threat perceptions in everyday stressful situation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Vol. 27 No. 1*, pp. 83-100.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uthén, L. K. & Muthén, B. O.(2007). *Mplus user's guide, Fifth edition*.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Olsson, G. & von Knorring, A. L.(1997). Depression among Swedish adolescents measured by the self-rating scale 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depression child

- (CES-DC).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 6*, pp. 81-87.
- Olweus, D.(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Vol. 35*, pp. 1171-1190.
- Paquette, J. A. & Underwood, M. K.(1999). Gender differences in young adolescents' experiences of peer victimization: Social and physical aggression. *Merrill-almer Quarterly, Vol. 45*, pp. 242-266.
- Prinstein, M. J., Boergers, J., & Vernberg, E. M.(2001).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ce: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in aggressors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30*, pp. 479-491.
- Reiss, D. & Oliveri, M. E.(1991). The family's conception of accountability and competence: A new approach to the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family stress. *Family Process, Vol. 30*, pp. 193-214.
- Rindskopf, D.(1984). Using phantom and imaginary latent variables to parameters constraints in linear structural models. *Psychometrika, Vol. 49 No. 1*. pp. 37-47.
- Rotenberg, K. J., Kim, L. S., & Herman-Stahl, M.(1998). The role of primary and secondary appraisals in negative emotion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of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Vol. 29 No. 1/2*, pp. 43-66.
- Rowley, A. A., Roesch, S. C., Jurica, B. J., & Vaughn, A. A.(2005). Developing and validating a stress appraisal measure for minorit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 28*, pp. 547-557.
- Rudolph, K. D.(2002).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responses to interpersonal stres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30*, pp. 3-13.
- Satorra, A. & Bentler, P. M.(1994). Corrections to test statistics and standard error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In von Eye & C. C. Clogg(Eds.), *Latent variable analysis: Applications to developmental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Schwarzer, R. & Jerusalem, M.(1995).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 In J. Weinman, S. Wright, & M. Johnston, *Measures in health psychology: A user's portfolio. Causal and control beliefs*(pp. 35-37). Windsor, UK: NFER-NELSON.

- Schwarzer, R. & Scholz, U.(2000). *Cross-cultural assessment of coping resources: The general perceived self-efficacy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First Asian Congress of Health Psychology: Health Psychology and Culture, Tokyo, Japan.
- Seiffge-Krenke, I. & Klessinger, N.(2000). Long-term effects of avoidant coping on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Vol. 29 No. 6*, pp. 617-630.
- Storch, E. A., Masia-Warner, C., Crisp, H., & Klein, R. G.(2005). Peer victimization and social anxiety in adolescence: A prospective study. *Aggressive Behavior, Vol. 31*, pp. 437-452.
- Sullivan, T. N., Farrell, A. D., & Kliewer, W.(2006). Peer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and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drug use, aggression, and delinquent behaviors among urban middle school students.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Vol. 18*, pp. 119-137.
- Terry, D. J. (1994).Determinants of coping: The role of stable and situational factor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 66 No. 5*, pp. 895-910.
- Tobin, D. L.(1995). *Scoring information for the CSI-S*.
- Tobin, D. L.(2001). *User manual for the coping strategies inventory*.
- Tobin, D. L., Holroyd, K. A., Reynolds, R. V., & Wigal, J. K.(1989). The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of the coping strategies inventory. *Cognitive Therapy & Research, Vol. 13 No. 4*, pp. 343-361.
- Vernberg, E. M. Jacobs A. K., & Hershberger, S. L.(1999). Peer victimization and attitudes about violence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28*, pp. 386-395.
- Weissman, M. M., Orvaschel, H., & Padian, N.(1980). Children's symptom and social functioning self report scales: Comparison of mothers' and children's reports. *Journal of Nervous Mental Disorders, Vol. 168 No. 12*, pp. 736-74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ABSTRACT

#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ce Based on Stress-Coping Theory : A Focus on Cognitive Factors and Coping Strategies

Choi, Jung-A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and the body of research on relational victimization into the domain of stress-cop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es of harm that underlie this type of peer victimization.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clinical implications for the victimized adolescents by examining the processes involved. Based upon stress-coping theory, a theoretical model where relational victimization was hypothesized in order to affect threat appraisal and self-efficacy and each was hypothesized to affect depression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engagement coping and disengagement coping. The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1,363 students of 12 middle schools located at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rom November 15 to November 29, 2008. In analysis, 1,238 data sets were used, excluding those having many missing data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ulti-group analysis was employed for the purposes of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relational victimiz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reat appraisal and self-efficacy. In addition, threat appraisal was found to affect depressio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disengagement coping. Self-efficacy was found to affect depression indirectly through 2 coping strategies respectively.

These results imply that such cognitive factors as threat appraisal and self-efficacy

---

\* Jeonju University

and coping strategies need to be emphasized as strategies in order to prevent or alleviate the negative effects of relational victimization on adolescent depression.

**Key Words** : relational victimization, adolescent depression, threat appraisal, self-efficacy, engagement coping, disengagement coping, stress-coping the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diating effects

투고일 : 3월 15일, 심사일 : 4월 26일, 심사완료일 : 4월 26일